

# 미국 25% 관세폭탄... 광주 수출기업 '비상'

###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 33.1%...자동차 1위 기아 광주공장·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영향권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 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계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광주지역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한 지역기업들이 상호관계 부과 영향권에 들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3월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을 통

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계가 부과됐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지역에서는 수출기업들의 물량 급감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지역 제조업 총생산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영향권에 들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 수출입 평가 보고서에 보면 광주의 대미 수출은 33.1%로 1위다. 2위인 싱가포르(11.7%)와 견줘 2.8배 격차다.

또 수출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44.3% (68억8000만 달러)로 압도적 1위다.

지난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전체 생산량은 51만 3000여대이며, 수출 물량은 33만2000여대 (65%)다. 즉, 내수보다 수

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또 수출물량 중 절반 이상(55%)인 18만여대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차종은 쏘울, 셀토스, 스포티지 3종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측은 이미 예고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25% 관세 조치에 새로운 상호관계까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위안을 삼고 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참고자료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대해 상호관계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냉장고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역시 상호관계 부과 조치의 사정권 내에 있다.

지난해 기준 수출 품목 중 냉장고와 부

속품인 고무제품의 수출 비중은 각 5.4% (8억3000만 달러), 5.1% (8억 달러)다.

자동차에 비해 적지만,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역시 상호관계에 따른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생산하는 멕시코 삼성공장이 10%의 기본 관세를 뿐만 아니라 국가별 상호관계 부과 대상에서도 당분간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광주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 측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멕시코 공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대비책을 상구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mailto:sdw0918@gwangnam.co.kr)

### 롯데 광주점, 웨딩페어 개최 13일까지...30개 브랜드 참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일부터 13일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롯데웨딩페어'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웨딩페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 큐레이션'을 중심으로 럭셔리 브랜드와 혼수 준비에 필요한 리빙 상품군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

프리미엄 예물 및 참여브랜드 수를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프리다', '브라이틀링', '태크호이어', '타입', '템퍼', '에이스' 등 3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먼저 광주점은 행사 기간 동안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십 가입 후 9개월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된 금액을 적립해 누계 적립 금액의 최대 7%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명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웨딩페어 기간 동안에는 구매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올해는 양가 가족을 위한 선물부터 상견례를 대비해 꿀러시, 마에스트로, 지이크, 타임, 마인 등 예복까지 실용적인 웨딩 상품을 강화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큐레이션'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는 구매금액에 따라 웨딩마일리지 100만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특별 혜택과 구매금액의 최대 8.5%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웨딩 고객 한정 선물 프로모션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웨딩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청과 선물 세트 15%, 허니 선물세트 35% 할인 혜택을 다음달 6일까지 제공한다.

결혼 성수기인 4월 전후로 답례품을 구매하는 웨딩 고객을 위해 롯데백화점부터는 온라인 답례품 전문관을 선보인다.

답례품 전문관 'LOTTE WEDDING GIFT'에서 30만원 이상 구매시 구매 금액대에 따라 웨딩 및 선혼마일리지를 최대 90만점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웨딩멤버십 회원 전용 할인 쿠폰과 함께 7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5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10% 증복 쿠폰도 제공한다.

신원호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업기획팀장은 "이번 행사는 예복, 리빙, 럭셔리 등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선물 큐레이션'을 선보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걸음이 성실한 준비인 웨딩페어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mailto:sdw0918@gwangnam.co.kr)

### “중소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최선” 박경재 상산건설 대표이사, 대한건설 전남도회장 선출



박경재 상산건설(주) 대표이사(사진)가 제24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에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3일 광주 서구 웨딩그림위더스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4대 회장으로 박경재 상산건설(주) 대표이사를 만장일치 선출했다. 박경재 회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7년 6월 25일까지 건설협회 전남도회를 이끌게 됐다.

박경재 회장은 1995년 건설업을 시작한 이래 30년간 건설시공을 원칙으로 정도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 2018~2023년까지 중부권역위원회 의장, 2023년부터는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또 건설협회 대의원 및 기획위원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경재 회장은 “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건설업체와 도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건설업체의 현안해결을 강조하며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도내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의 결 및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등을 결정했다.

감사로는 박찬 해동건설(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이와 함께 지역 4년제 대학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우수 대학생 13명에게 각 150만원씩 총 19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mailto:sdw0918@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일부터 13일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롯데웨딩페어'를 개최한다. 프리미엄 예물 및 참여브랜드 수를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프리다', '브라이틀링', '태크호이어', '타입', '템퍼', '에이스' 등 3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 “광주신세계 확장 지연...인허가 기관 지원을”

### 광주경총 우려했던...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조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3일 광주신세계의 프리미엄 백화점 확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기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는 2027년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인근에 조성될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백화점의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4월 설립 후 지역을 대표하는 백화점이자 랜드마크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중추를 형성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여왔다. 특히 지역 사회 요청에 따라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 현직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0여년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고용창출과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광주경총은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4조 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쇼핑·문화·예술이 복합된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확장하는 사업 계획을 제시, 지역 사회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며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면 건설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광주전남 산골 현상을 통해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소비 지출 증대로 지역 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계획 발표 1년이 넘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확장사업에 진전이 없다”며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장기화로 모처럼 광주시가 갖게 된 소비증대, 고용창출, 유통과 문화의 랜드마크 조성 기회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총은 “인허가 기관인 광주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광천터미널 현대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신세계 확장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광주신세계도 지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상생방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mailto: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도시공사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스포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원하는 광고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은행, 지역 스포츠 성장·도약 팔거언 광주도시공사와 광고 후원 협약...3000만원 쾌척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도시공사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스포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원하는 광고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주은행은 선수단의 성적 향상과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여자 핸드볼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스포츠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FC의 2024시즌 선전을 지원하며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했다. 또 지역 출신 세계적 스포츠 스타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

단인 '텐텐(Ten Ten) 양궁단'과 '비츠로 배드민턴단'을 운영하며 지역 스포츠 스타의 성장을 돕고 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장은 “지역 비인기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은행과 다방면적 협력을 추진하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도시공사와 여자핸드볼팀이 더욱 선전에 광주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후원금이 선수단의 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지역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 중기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 14개국 21개 지역 설치...사무실·법률 서비스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GBC에 입주하는 기업은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화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들에게는 독립실과 공용 회의실이 제공되며 비업무기업을 주시로 공유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의 원

활한 현지 정착을 위해 법률·회계·노동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GBC 소재국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등)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GBC 운영 방향 및 지원체계를 크게 개선했다.

실제,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춰 GBC 소재국별 현지 전문가 및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 국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온라인 세미나 및 후

속 상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에게는 입주평가 시 최고 수준인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입주공간 부족으로 입주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 공유오피스를 최대 4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은 입주 대기 기간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률·회계·노동 등 현지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GBC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중진공 누리집(<https://www.kosmes.or.kr>)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오피스는 온라인예약시스템(<https://gbc.kosmes.or.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mailto:sdw0918@gwangnam.co.kr)

### 비이자 수익관리 역량 강화 농협 전남본부, 신용책임자 교육

농협 전남본부는 3일 본부 대강당에서 농협 신용책임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이자 수익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 농협협의 비이자사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농협 손해보합 주력상품 소개, 농협생명보험 추진전략, 농협카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손익 다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농협 직원들은 농협협의 신용사업기반 유지를 위한 예수금 증대 및 예신 연계를 관리, 카드·보험 등 신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농협상호금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결의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상호금융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농협상호금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mailto:photo25@)